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 상황학습을 통한 문법교육 연구

- '사동·피동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공 윤 희

# 상황학습을 통한 문법교육 연구

- '사동·피동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혜선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공윤희

인 준 서

공유회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 개요

본고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을 통해 더 나은 문법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 교과서 5종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문법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문법교육은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들에게까지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수업으로 그 존재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그동안 여러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주입식 교육, 설명하고 암기하는 데 급급하기만 했던 전통적 교육 방식이 낳은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법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고 문법 기피증을 초래했던 기존 문법 교육의 상황을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에 하나인 상황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II장에서는 상황학습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황학습이 문법교육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는 학습자 실생활에 근거한 과제 사용, 균형적인 학습 맥락 제공, 귀납적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 상황학습의 특징을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과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실

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의 매개물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과서 분석은 중학교 1학년(7학년) 국어 교과서로 한정하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가장 문법적이면서도 화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동·피동 표현’을 선정하였다. 교과서는 2010년 개정 교과서로 변경될 당시 기준으로 집계된 선정 순위 상위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기준 4가지를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분석 기준 4가지 중 유독 균형적인 학습 맥락의 제공과 협동학습의 구성이 다소 미흡하여 상황학습을 통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III장에서는 상황학습이론을 통한 ‘사동·피동 표현’ 교수·학습 방법을 새로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위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목표 중심 수업이 가장 효과적임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목표 중심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상황을 상황과 환경의 조성문제라는 논의를 통해 상황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 조성의 당위성을 얻고 앞서 지적인 교과서에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안할 것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동·피동 표현’의 성취기준과 내용학습의 예를 학습 목표, 소단원의 학습 목표, 소단원의 구체적인 목표 셋으로 나누어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세웠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그 문법적 실현 방법이 비슷할 뿐 실은 전혀 다른 문법 현상이므로 이 둘을 이원화하여 각각 1차시씩 분량을 수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고 각 표현마다 작은 단위의 학습목표 여러 개를 달성하여 최종 목표인 대단원의 목표에 이르는 나선형

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단원 수업 계획은 한 차시 분을 중학교 수업 시간 45분으로 하고 사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피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분 및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 이해하는 수업 1차시 해서 총 3차시 분량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문법의 학문적 특성상 문법 교육 안에서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여 모든 수업 과정이 탐구학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상황학습 이론 적용을 위해 기존의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도입(문제설정)-기본학습-탐구학습-발전학습-정리 및 평가’의 5단계로 나누어 과정안을 구성하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각 차시마다 활동지가 제공되며 제시된 활동을 팀을 이루어 협동하여 수행하면서 귀납적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도입’ 후에 ‘기본학습’에서는 문법의 지식·개념의 충분한 교수·학습을 통해 균형적인 학습 맥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인지적 발판 형성·코칭으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자극을 제공하고, 수업이 진행되어 활동이나 협동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책임을 학습자에게로 이양하여 마지막 차시에서는 거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위의 연구 과정을 통해 사동·피동 표현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고 수업 과정안 3차시 분량, 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 예시안 3개를 구안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문법 교육에서만은 그 결과가 미흡하고, 더없이 노력해야만 문법 교육의 기피 현상 극복에 아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을 통한 문

법의 교수·학습 활동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된다면 현재의 문법교육은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전과는 다른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구성주의, 문법교육, 상황학습, 교수·학습 활동, 사동·피동 표현

# 목 차

논문요약

|   |    |
|---|----|
| I. 서론 .....                                 |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 1  |
| 2. 선행연구 검토 .....                            | 2  |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6  |
| II. 상황학습의 관점에서 본 문법교육 양상 .....              | 8  |
| 1. 상황학습이론의 개념과 특징 .....                     | 9  |
| 2. 상황학습과 문법교육의 관련성 .....                    | 13 |
| 3. 상황학습이 반영된 현행 교과서 분석 .....                | 21 |
| III. 상황학습이론을 통한 ‘사동·피동표현’ 교수·학습 방법 제안 ..... | 39 |
| 1.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방향 .....                    | 40 |
| 2.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실제 .....                    | 43 |
| IV. 결론 .....                                | 67 |

참고문헌

Abstract

## 표 목 차

|  |    |
|--|----|
| <표-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내용체계 .....   | 18 |
| <표-2> 5종 교과서별 사동과 피동 표현 단위 주요 맥락 ..... | 34 |
| <표-3> 5종 교과서별 사동과 피동 표현 단위 전개 방식 ..... | 36 |
| <표-4> 목표 중심의 수업 설계 .....               | 41 |
| <표-5> 학습 목표 .....                      | 44 |
| <표-6> 수업 지도 계획 .....                   | 45 |
| <표-7>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 47 |
| <표-8> 사동 표현 활동지 예시 .....               | 51 |
| <표-9>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              | 55 |
| <표-10> 피동 표현 활동지 예시 .....              | 59 |
| <표-11>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             | 61 |
| <표-12> 사동·피동 표현 활동지 예시 .....           | 64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7학년 검정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영역의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과정과 여타 몇 가지 이론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문법 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5차 교육과정 이후 국어과에서는 교육영역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6영역 구분의 타당성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언어 기능’에 해당하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와 ‘문학’과 ‘문법’이 국어과 교육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지도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이 6영역 중 유독 문법은 그 명칭에 있어서도 교육과정마다 변경이 자주 있었고 다른 영역이나 다른 교과에 비해 그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위축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에서 문법 교육은 더 심하게 위축되어 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자료에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 있다. 자료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국어교과 선택과목 개설 현황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교과는 문학(31.04%), 독서(23.45%), 작문(17.48%)의 순으로 나타났고, 선택비율이 10%미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 교과는 화법(4.84%)과 문법(8.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sup>2)</sup> 이와 같이 국어 교과 내에서 불균형한 선택 과목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문법 과목에 대한 선택률이 유독 현저하게 낮은 현상을 보면, 교육적 타당성

1) 전은주(2010)의 부산대 한국문법교육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0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과목 개설 현황의 통계자료에 의한다.

의 문제가 아니라 교과적 특수성을 잘 살리지 못한 교과의 체계에 기인한  
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에 대한 이런 오해에서 비롯된 문법 기피  
현상을 알고 학습자 중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 내용을 구성, 개  
념을 제시하며 맥락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 탐구학습이 가능하도록 하  
는 활동을 제시하는 등 문법 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변화를 모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법 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실  
제 언어생활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개선안이 반영된 2007 개정 국어교과  
서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 여타 국어 교육 및 문법 교  
육에서 논의되는 이론들과의 비교를 통해 상황학습을 통한 교육으로 문법  
영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숙고해보고자 한다.

## 2. 선행 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는 두 가지 범주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문법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해왔는지를 살펴보고  
기존의 문법 교육에 대해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법교육  
과 표현의 관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상황학습  
이론이 얼마나 많은 여타 학문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해  
보고 문법교육에서 상황학습이론의 적용이 타당할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기존의 문법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고 암기를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강의  
식 직접교수법을 통해 이루어지곤 하였다. 주세형(2005)은 지금까지의 문법

교육이 국어학적 지식을 제대로 내면화시키지도, 학습자들의 문법 능력을 발달시키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전통적으로 문법 교육에서 제공되는 각종 개념은 학습자에게 규칙 명제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고춘화(2010)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학습자들은 이들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지식, 고정된 형식 지식으로 간주하기 쉽게 되었고 따라서 기존의 문법 교육이 용어를 제시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형식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문법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를 일으키지 못하는 수업, 교사의 일방적 전달로만 진행되는 수업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 강의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지식과 기능을 전달할 수 있고 학습자의 흥미나 선수학습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교수법은 일방적이고 단선적이기 때문에 자칫 매우 따분하고 지루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김광해(1992)는 국어과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일환으로 탐구학습을 주장했다. 이는 학습자가 어떤 주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학습방법이다. 여기에서 탐구학습을 문법 영역의 구체적 교수·학습으로 제시하는 의미를 밝히고 문법(국어지식)영역의 학습을 ‘이해’와 ‘지식’으로 나눌 때, ‘지식’에 해당하는 음성, 단어, 문장, 위상론 등은 탐구학습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따라서 탐구학습을 문법 교육의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으로 제안하면서 연역적 지식 전달의 교수 상황을 귀납적 지식 도출의 학습상황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하였다.(김광해, 1997) 남가영(2008)에서는 ‘탐구 경험’을 문법 교육의 고유한 속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탐구’에 대한 개념을 기존의 교수학습과정과 관

런된 층위에서 확장하여 교육적 경험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문법적 사고가 단순히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문법 자체의 특질에서 그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이관규(2001)는 탐구학습이 지식'학교 현장에서 적용되기 힘든 점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는 현실적 방법으로 절충식 탐구 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 사실상 학교 문법 교육에서 순수한 탐구학습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학교 문법 교육의 재고를 위한 실천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기존의 탐구학습에 비해 교사의 비중이 높아져 교사는 학생들이 혼자 다가가기 힘든 문법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설명을 해 줄 수 있고, 학생들은 그러한 교사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탐구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문법 교육을 위한 실천적 학습 방안인 탐구학습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안 모형 역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앞선 이관규(2001)의 노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 현장에서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논의는 교사의 개념 제시나 용어 설명 등 기존의 강의법이나 직접교수와 절충하게 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차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문법 교육은 지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에서도 그 교육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성광수 외(2005)에서는 표현을 위한 한국어 문법을 주창하고 한국어 표현 문법을 한국어의 개별 특수 규칙을 위주로 기술하고 이해하기 보다는 활용 위주로 기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는 문법을 언어구조체로만 인식하던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나아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표현하는 데에 작용하는 문법의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주세형(2005)은 문장을 언어

구조로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의도한 하나의 사태인 정보 구조’로 보는 관점을 세우고 언어활동의 전 과정에서 의미와 경험을 구성하는 생산적 도구로서의 문법 지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는 실제 학교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이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 문법 교육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기존의 문법 교육을 살펴보고 문법 교육에서 ‘표현’이 가지는 의미 또한 고찰했다. 이에 문법적 표현이 ‘의도한 하나의 사태인 정보 구조’(주세형, 2005)라는 점에서 구성주의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과 그 의의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황학습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학습에 대한 교육적 연구는 사실상 국어 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도 상황학습을 적용하고 있었고 가정교육과 또 의학에서도 상황학습 이론이 적용되고 있었다. 김현영(2011)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상황학습의 설계를 구상하고 학습자의 지식 생성 과정 및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로 상황학습을 통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영(2011)은 상황학습을 가정교육에 적용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의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에서 상황학습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실생활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전통적인 교육의 한계를 실생활과 연계된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학습이론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실제 실험집단에는 상황학습

에 따른 수업을 실시하고 비교 집단에는 전통적 수업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려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유효빈(2010)은 의학교육에서도 상황 학습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는데,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한 통합 기반시물레이터 수업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상황학습과 수용학습의 비교를 통해 교수자의 강의만을 통해 문제 상황과 해결 방법을 학습한 학습자 보다 스스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한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더 내면화하고 유의미하게 인식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상황학습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국어교육, 특히 문법 교육에서 ‘표현을 위한 문법 교육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문법 교육의 다양한 논의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한 ‘방법’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미미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부족함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따라서 중등 국어과 문법 교육에서 상황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와 상황학습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문법 교육에서도 교육과정 및 교과에 상황학습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구현 방향과 실재는 어떠한지 연구해 보도록 한다.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교과서에서 문법 영역 구현의 지향점은 학습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탐구학습이 되어야 하고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 가능하여 모종의 언어적 성취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문법에 대한 오해와 부정성을 극복하여 학

습자들이 문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문제에 대한 검토를 위해 방법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가 갖는 위상이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의사소통을 매개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분석의 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나타난 ‘문법’ 영역에 한정하였으며 학년은 7학년(중학교 1학년) ‘사동·피동표현’ 단원으로 선택, 교과서는 검정 국어교과서 5종(천재교육\_박영목(1-2), 비유와 상징\_조동길(1-2), 교학사\_김형철(1-2), 천재교육\_노미숙(1-2),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1-2))에 한하여 수행하였다. 둘째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에서 논의되는 이론들과의 교과서 비교 분석은 교육과정과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진행하였고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황학습 이론의 총체적 검토를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 상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문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7학년 교과서에 구현된 문법 영역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이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의 이론적 특성에 부합되는지, 교과적 특수성을 잘 살려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Ⅱ. 상황학습의 관점에서 본 문법교육 양상

과거에 문법교육은 국어교육 안에서 항상 그에 대한 필요성부터 역설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보다는 늘 문법교육이 정말 필요한가의 논의에서 그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문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문법이 이미 교육과정 상에 엄연한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작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 한 개인을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더 이상 그 필요성의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법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안은 앞서 말한 문법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의 후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작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면?’이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이 물음 안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내포되어 있다. 바로 ‘작문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라는 전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문법적 행위가 단독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맥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구조적이든 비구조적이든 하나의 상황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보여주는 상황학습이론의 전반적 양상을 살펴보고 문법교육에 나타나는 상황학습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상황학습이론의 개념과 특징

### 1) 상황학습의 개념

상황학습이론은 구성주의에서 비롯된 학습 이론으로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을 개인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인지구조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러한 지식의 습득은 개인이 속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미 형성된 개념과 새로 배우게 될 개념, 그리고 그를 공유한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로 인해 학습자 스스로가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 과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상황학습은 그 중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학습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고 지식과 행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즉, 지식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은 지각과 행동의 사이클에서 상호작용하며 문제의 규명은 문제해결과 함께 학습의 전이를 촉진시킨다. 다시 말해 상황학습에서 지식을 안다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알고 그 이외의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사이클을 형성하며 그러기 위해서 지식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문화적 적응훈련과정을 거치는 학습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황주의 학습을 처음 주장했던 Brown, Collins, Duquid(1989)도 역시 지식이라는 것은 상황적이고 그 지식이 사용될 과제, 맥락, 문화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지 결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어야만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주장하였다(허창범, 1992).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에 대한 기본 가정들을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첫째, 안다는 것은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학습이란 이전의 경험에서 구성된 지식들과 새로운 경험이 비교되는 한 과정이다. 셋째, 학습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지식이 적용되거나 강화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인의 지식 구성에 있어서 토대를 형성한다. 넷째, 학습 환경에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유된 의미들은 공통의 지식 또는 공유된 지식으로서 발달되어 간다. 다섯째, 학습은 사회적 활동들과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구성주의를 모체로 삼고 있는 상황학습이론의 개념은 Lemake(1997)의 ‘생명력 있는 실천으로서의 지식’과 ‘실천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습’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통해 표명할 수 있다. 첫째, ‘생명력 있는 실천으로서의 지식’이란 개인의 인지과정이 사회·문화적 상황과 그 상황 내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적 활동으로 이루어질 때 성립됨을 의미하며, 이는 지식이 어떤 문화에 속한 구성원 간에 서로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로서 실천되어야만 진정한 지식임을 강조하고 있다(정연희, 2003). 둘째, 상황학습의 관점에서 학습은 학습자가 실천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구성적인 관계가 발전적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태를 향해 나아가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Lave & Wenger, 1991; 정연희, 2003).

상황학습이론은 지식이나 기능이 유의미한 상황 맥락 안에서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학습자 실생활을 기반으로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맥락 안에서 제공하면 활발한 학습의 전이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 2) 상황학습의 특징

상황학습은 수업을 실제 생활의 경험과 관련시키고 학습자가 지식이나 기능을 사용할 실제 상황 맥락 안에서 학습과제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Jonassen(1991)은 “상황을 배제한 학습은 결국 전혀 관계가 없는 경험의 허상만을 제공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상황학습 이론들을 정리해 볼 때, 상황학습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실생활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과제 사용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학생들에게 주로 주입식 개념과 암기위주의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하고 맞고 틀린 것을 가리는 평가에만 치중하였다. 이러한 학습상황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이 분리되어 학습자가 학습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동기유발이 힘들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익숙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활동들로 구성된 실제적인 과제는 학습의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학습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며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조절 학습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의 제공을 중요시한다. 앞서 말했다시피, 학습은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국어교육은 수많은 대화와 상호커뮤니케이션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학습은 독립된 상황이 아닌 다양하고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Winn은 “학습자들이 학습한 것을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을 다양화함으로써 일반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sup>3)</sup>하였다.

---

3) 최정임(1997)은 상황학습이론에 따른 학습내용구성, 교사역할, 평가 원리에 대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다양한 상황을 접함으로써 학습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일반화가 더 잘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셋째, 전문가가 초보자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인지적 도제학습<sup>4)</sup>이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는 자칫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교수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방법의 문제에서 생각해야 할 일이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인지적 도제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직선적인 내용 전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에게 대화와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적 도제학습이 상황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이유 역시 학습자 실생활 중심의 맥락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제에서 찾을 수 있다. 맥락은 수식으로 표현하거나 한 단어로 말할 수 없고 그 때의 시간, 공간, 느낌, 서로의 공감

4) 인지적 도제학습은 사실상 또 다른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으나, 본고에서는 상황학습의 전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보고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학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써 인지적 도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전략을 각주에 신고 전략 3단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보아 상황학습의 특징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적 도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전략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1단계 | 모델링<br>(Modeling)      | 전문가(통상적으로 교사)나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여 실제 수행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시범과 설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학습자는 그 과정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
|     | 코칭<br>(Coaching)       |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전문가 또는 컴퓨터와 같은 매체가 이를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힌트와 피드백 등 외부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     | 스캐폴딩<br>(Scaffolding)  | 코칭의 과정에서 과제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교사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며 학습에 도움을 주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 페이딩<br>(Fading)        | 과제수행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적으로 감소되며(Fading)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경우 제공하지 않는다.  |
| 2단계 | 명료화<br>(Articulation)  | 학습자가 학습 자료에 대해 자신이 구성한 지식과 이해 그리고 수행에 대해 시범을 보이거나 명료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
|     | 반성적 사고<br>(Reflection) | 학습자가 자신의 과제수행 과정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수행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
| 3단계 | 탐구<br>(Exploration)    |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나 가설 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내러티브(narrative)를 형성하므로 교사는 대화를 통한 스토리의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고 학습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인지적 도제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 스스로의 탐구학습을 추구하게 되고 학습자는 교사의 도움을 통해 자기조절학습이 가능하다.

넷째, 협동학습을 강조한다. 이는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나 기능이 사회적 논의와 합의에 의해서 구성되고 전달되므로 상황학습에서는 협동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협동학습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학습을 통한 지식과 기능의 공유에 책임을 갖게 된다. 학습자들 간에 각자의 생각을 설명하고, 듣고, 교류하고, 비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도 반성하고 성찰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 2. 문법교육과정과 상황학습의 관련성

주세형(2006)은 그의 저서에서 국어과 교육 문법 영역의 야누스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며 ‘내용’과 ‘방법’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그는 문법 영역이 ‘언어’에 집중하게 하는 역할의 내용 영역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고찰 이후, 방법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삶의 문제를 구성하고 해결하는 생산적 도구를 얻게 하는 역할’로 규명하고 있다. 그는 문법 교육의 위기는, 이 영역의 야누스적 역할을 모두 강화하는 데서 타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현재 국어과 교육 전체를 놓고 본다면 문법 영역의 방법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볼 때, 문법교육에서는 이미 방법적 역할의 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단초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근간인 교육 과정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자 실생활과 맥락을 통한 교육방법인 상황학습의 모습이 문법영역의 교육과정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1) 성격

현행 국어교과서에 반영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영역의 ‘성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국어과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과 국어 문화의 창조, 공동체의 발전과 자아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교과임을 분명히 하였다.

...(중략)... ‘문법’학습은 언어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학습한 지식을 국어 사용 실제에 적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였다. 즉, 문법에 대한 학습은 교사 위주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언어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규칙을 발견하게 하고, 이렇게 습득한 지식을 국어 사용 과정에서 활용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다. 이는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문법학습을 개선하려는 의도이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해설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서두에 국어과의 성격을 거시적으로 제시해 놓았다면 각 영역별로 제시한 부분에서는 세분하여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은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의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지양, 주체적 자기 주도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이는 곧 실제 학교 교실 현장에서 상황학습의 방법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개정된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에서 말하는 기능적 문식성의 신장과 자아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 2) 목표

개정된 문법교육과정에서의 목표는 지식과 기능의 실제 사용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맥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종합적 언어성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방법에 대해 시사는 바가 더욱 크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를 살펴보자.

##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국어 활동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 가. 국어 활동과 국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활용하면서 자신의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 나.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생산한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미래 지향의 국어 문화를 창조한다.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는 국어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국어에 대한 지식을 익히고 사용하고 탐구하고, 수용하고 생산하며, 궁극엔 국어 문화를 창조하는 데 까지 이르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를 문법 영역에 국한시켜 적용해보면, 이와 같은 국어과의 목표가 문법 학습의 목표에서도 나름대로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문법 영역 뿐 만 아니라 다른 여타 영역에

서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목표를 바르고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은 진리이나 목표는 언제나 과정의 끝에 있다. 따라서 어떤 과정을 거쳐, 즉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는 교사의 전문성에 맡겨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또 문법교육의 방법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3) 내용체계와 학년별 내용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을 내용 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는 학년별 내용에서 ‘사동·피동 표현’이 구현된 7학년의 내용만 따로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 문법영역 중에서도 7학년 ‘사동·피동 표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7학년은 중학교 1학년으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던 총괄적인 국어수업과 달리 문법수업을 따로 시작하게 되는 학년으로서 문법수업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흥미를 유발시켜야 하므로 지식에 가까운 문법내용이나 지루한 작문으로 이어지는 내용보다는 문법내용이면서도 화법에 가까운 내용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따라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7학년 문법영역에 실린 학년별 내용 5개<sup>5)</sup> 중 [7-문법-(1)]과 [7-문법-(2)]는 화법에 가까운 내용으로 분류하고, [7-(문법)-3]과 [7-(문법)-5]는 지식, 개념에 가까운 내용으로 분류하여 가장 문법을 통한 화법수업이 가능한 [7-(문법)-4]의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로

5) [7-문법-(1)] 다양한 매체에 나타난 언어 사용 방식의 차이점을 파악한다.

[7-문법-(2)] 관용 표현의 개념과 효과를 이해한다.

[7-문법-(3)] 품사의 개념, 분류 기준, 특성을 이해한다.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7-문법-(5)] 지시어가 글의 구조와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국어, 교육과학기술부, 42:24-47:3

선정하였다.

(1) 내용체계

교육과정에서는 문법영역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문법 내용체계

- 문 법 -

| 국어 사용의 실제  |      |  |        |
|--|------|--|--------|
| - 음운   | - 단어 | - 문장   | - 담화/글 |
| <b>지 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언어의 본질</li><li>국어의 특징</li><li>국어의 역사</li><li>국어의 규범</li></ul> |      | <b>탐 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관찰과 분석</li><li>설명과 일반화</li><li>판단과 적용</li></ul> |        |
| <b>맥 락</b>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어 의식</li><li>국어 생활 문화</li></ul>                              |      |  |        |

내용체계 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국어 사용의 실제에 언어적 단위를 열거하고 지식, 탐구, 맥락을 점선으로 제시하여 세 요소를 통해 국어 사용의 실제에 도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체계 표는 문법교육의 방법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자 지침이 될 수 있다.

학습 내용에 있어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탐구와 맥락을 설정해 놓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법교육에서 우리의 문법지식을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으로 탐구하고 이를 국어 의식과 생활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도식화한 것이다. 표에도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관찰과 분석’, ‘설명과 일반화’, ‘판단과 적용’은 전통적인 문법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문법교육 방법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열거한 탐구의 방법들은 구성주의 학습의 일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생활 중심의 상황학습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2) 학년별 내용

학년별 내용을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 ·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로 선택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재차 언급 없이 바로 살펴보도록 한다.

[7-문법-(4)]<sup>6)</sup>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 · 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내용 요소의 예]

- 사동 · 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 · 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6) 2007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상, 7학년이 문법수업을 통해 도달해야할 성취기준 4번째에 해당한다.

## 이해하기

-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심리적 · 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 사동 · 피동 표현에 의해 의미 해석 양상이 달라지는 언어 자료

사동 · 피동 표현을 사용한 담화나 글로서, 텔레비전 뉴스의 일부 분이나 신문 기사문,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풀어낸 글, 필자나 화자의 관점 및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난 담화 혹은 글, 나아가 시사 만화나 그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7학년이 문법영역에서 배워야 할 4번째 내용으로 사동 · 피동 표현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의미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심리적 ·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목하여야 할 점은 단순히 사동 · 피동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개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자료를 통해 그 표현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 차이를 알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법수업 시간에 사동과 피동에 대한 문법적 지식과 함께 학습자 실생활에 적합한 다양한 언어자료를 사용하여 그러한 문법적 발화가 이루어지는 주변적 상황까지 이해하도록 수업 과정이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3. 상황학습이 반영된 현행 교과서 분석

앞서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상황학습의 모습이 얼마나 적용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장에서는 개정된 교육과정이 반영된 현행 교과서에는 상황학습이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2010년 중학교 지역별·학교별 국어 교과서 선정현황 통계자료에 따라 전국적으로 채택률이 10%이상으로 높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5종을 선택하였고 1위가 천재교육(박영목) 중학교 국어1-1, 2위가 비유와 상징(조동길) 중학교 국어1-1, 3위가 (주)교학사(김형철) 중학교 국어1-2, 4위가 천재교육(노미숙) 중학교 국어1-2, 5위가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 중학교 국어1-2 로 분포되어 있다.<sup>7)</sup>

상황학습이론에 따른 교과서 분석 기준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고자 한다. 김제희(2004)<sup>8)</sup>에서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을 연구하였는데 내용 분석에 대한 준거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첫째, 내용 구성 방식을 분석하여 연역형·귀납형인가? 내용중

7) 2010년 중학교 지역별·학교별 국어교과서 선정 현황,

자료 출처 : <http://kanghj67.blog.me/140106339250>

8) (표) 김제희(2004), 구성주의 관점에 의한 내용분석의 준거 도출과정

| 구분        | 객관주의                 | 구성주의                    | 내용 분석의 준거                     |
|-----------|----------------------|-------------------------|-------------------------------|
| 논리 전개 방식  | 내용 중심, 연역적 진술 방식     | 탐구 중심, 귀납적 진술 방식        | 내용 구성 방식 - 탐구 중심, 귀납적 형태의 가능성 |
| 학습의 주도권   | 교사                   | 학생                      | 자기 주도적 학습의 가능성                |
| 과제의 성격    |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학문적 과제   | 복잡하고 구체적 상황이 담긴 실제적 과제  | 맥락 의존성의 가능성                   |
| 교과 내용 구성  | 학문의 계열성과 계속성 중시하여 조직 |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조직 | 간학문적 내용 구성의 가능성               |
| 학습의 주된 형태 | 주로 교사의 일방적 전달        | 교사-학습자,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활발  | 협동학습의 가능성                     |

심·탐구중심인가? 의 문제이다. 둘째, 교과서 내용과 학습과제를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가? 의 문제이다. 셋째, 교과서에 제시한 내용요소와 탐구과제(활동), 사례탐구는 적절하고 학생들의 실제 생활 사태에 접근해 있는 것인가? 의 문제이다. 넷째, 교과서 내용에 있어서 간학문적 내용구성이 이루어 졌는가? 의 문제이다. 다섯째, 교과서의 탐구과제(활동)가 협동학습을 수행하는데 적합한가? 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상황학습의 특징에 기초한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상황학습은 구성주의 학습이론 중 하나이므로 기준을 축소하고 실제 문법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구성하여 기준 4가지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설정한 분석 기준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 과제 사용 측면, 둘째 균형적인 학습 맥락 제공의 측면, 셋째 귀납적 탐구학습 가능성의 측면, 넷째 협동학습 가능성의 측면이다. 1번과 2번 기준은 선행연구인 김제희(2004)에서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기준을 더 좁은 개념인 상황학습이론의 관점으로 변용하였고 3번과 4번 기준은 구성주의 관점의 기준을 그대로 살려 설정하였다.

이상 4가지의 내용분석을 기준으로 앞서 선정한 5개의 교과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학습자 중심의 실제적 과제 사용 측면

먼저 천재교육(박영목)<sup>9)</sup>은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중학교 교과서 선정률이 14.8%로 가장 높았고 실제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가장 부담 없

---

9) 이하 편의상 [천재\_박]으로 칭한다.

이 채택하는 교과서인 것으로 보였다. [천재\_박]에서 ‘사동 · 피동 표현’은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5단원 언어의 세계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 (3) 피동표현과 사동표현 으로 구현되어 있다. 소단원(3)을 펼쳐보면 ‘함께 나누기’ 라는 활동을 구성하여 그림을 보고 그림의 상황을 문장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고 있다. 제시된 그림 (가)와 (나)는 학습자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아이들이 수박서리를 하다 주인에게 혼나는 모습과 엄마가 동생에서 우유를 주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문장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습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생활과 연관된 그림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어머니의 편지와 감’이라는 제목의 한편의 글이 실려 있고 읽기 전에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다음 글을 읽어봅시다.’ 라는 활동방향 제시가 나와 있다. 글을 읽고 난 후, 내용학습을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느낌과 글쓴이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찾도록 하고 목표학습에서 능동과 피동에 대한 의미 차이에 대한 활동을 하도록 한 후, 마지막으로 능동과 피동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하고 있다. 이후 주동과 사동에 대한 설명이 마찬가지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목표활동 마지막으로 뉴스 보도문을 실어 지나친 피동 표현 사용을 찾아보고 표현 효과에 대해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한 편의 글을 통해 사동 · 피동 표현을 찾아본다거나 뉴스 보도문을 실었다는 데서 실제적 과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주로 학습자 실생활에 관련되기 보다는 한 편의 완성된 글을 통해 사동 · 피동 표현을 학습하게 하고자 했다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통합학습에서도 4컷 만화를 보고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을 찾게 하고 표현의 차이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선택과제 2에서도 한 편의 글을

제시한 후, 밑줄 친 표현 가운데 피동 표현을 찾으려 하는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내포하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한 편의 완성된 글도 하나의 ‘실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천재\_박]에서는 다양한 실제적 과제를 구성하기 보다는 담화 자료 제시에 치중한 모습으로 구현되어 실제적 과제 사용의 가능성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비유와 상징(조동길)<sup>10)</sup>은 2010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11.7%로 [천재\_박]에 이어 두 번째로 선정률이 높은 교과서이다. ‘사동 · 피동 표현’에 대한 단원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매체와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 (1) 우리들의 언어생활로 구현되어 있다. ‘단원의 창’이라는 도입부에서 동기유발을 위해 만화를 삽입하고 학습목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만화에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 상황을 여러 가지 보여주고 그 방법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여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비상\_조]는 독특한 교과서 단원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단원(1)은 공감단원, 소단원(2)는 인지단원, 소단원(3)은 확장단원으로 설정하여 하나의 대단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선택학습을 몇 가지 영역별로 5개를 제시하여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동 · 피동 표현’에 대한 단원은 소단원(1) 공감단원으로 설정되어 있고 우리들의 언어생활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다. ‘들어가기’에서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3명이 같이 나와 있는 사진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속마음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여학생의 대화를 사진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생각 열기’를 통해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에 나타난 ‘사동 · 피동 표현’을 찾아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또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한 것

---

10) 이하 편의상 [비상\_조]로 칭한다.

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영호는 누가 시켜야만 하는 아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고 글의 내용은 지나친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었다. 이 글은 한 편의 이야기가 있는 글이지만 다분히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내용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실제적 과제 사용으로 볼 수 있으나 글의 의도가 너무 다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생각을 주입 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글 중간 중간 옆에 날개질문을 제시하여 글의 내용 이해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점도 보였다.

본문 글을 읽고 나면 학습활동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내용 학습에서 글의 내용에 대해 학습하고, 목표 학습에서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의미를 학습한다. 목표 학습에서는 그림을 제시하고 주동·능동 표현과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생각 맺기’에서는 사동 표현이 사용된 신문 기사의 만평을 자료로 제시하여 사동 표현을 찾고 그 주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학습활동을 마무리하고 있다. 신문 기사의 만평을 자료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제적 과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소단원(2)와 소단원(3)이 끝나면 ‘선택학습’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학습자 스스로 자기조절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은 부분이라 다양한 학습과제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제5개 중 3번째에 ‘다음 글을 읽고, 피동 표현의 올바른 쓰임을 생각해 보자.’라는 목표로 글을 한 편 제시하고 있다. 이 글 역시 ‘부자연스러운 이중 피동 표현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실태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실제적인 자료이긴 하나 지나치게 글의 목적성이 뚜렷하여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만화를 통해 앞서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제시하고 있다.

[비상\_조]에서는 실제적 과제 사용의 모습이 동기유발 단계 이외에는 많이 부족해보였고,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사동·피동 표현에 대해 학습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천재\_박]과 비슷하였으나, 담화자료의 내용이 지나친 사동·피동 표현 사용에 대한 경계로만 구성되어 있어 읽는 학습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고 생각을 강요당하는 느낌을 주도록 할 수도 있어 실제적 과제 사용에 좋은 담화 자료라고 볼 수는 없었다.

(주)교학사(김형철)<sup>11)</sup>는 전체 10.2%의 비율로 선정되고 있으며 중학교 1학년 2학기 4단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1) 사동 표현, 소단원(2) 피동 표현으로 사동·피동 표현만으로 아예 하나의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단원 열기’에서 학습 목표 3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앞서 교육과정에서 살펴본 [7-(문법)-(4)]의 [내용 요소의 예] 3가지를 그대로 학습 목표로 제시하여 교육과정에 충실하여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간단한 동기 유발을 위한 글과 그림을 삽입하여 이 단원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 것인지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리 학습’에서는 가장 먼저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한 학습을 구성하고 날개를 이용해 간단한 설명과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단원(1) 사동 표현으로 들어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갓난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사진을 동기 유발 자료로 제시하고 간단한 담화자료를 주고 있다. 실생활에 맞는 사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사동 표현

---

11) 이하 편의상 [교학\_김]이라고 칭한다.

찾아보기'에서는 담화자료, 책 표지, 휴대 전화 문자 창 등의 자료를 제시하여 사동 표현을 찾게 하여 실제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동 표현 이해하기', '사동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사동 표현 적용하기'에서는 주로 과제해결 활동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고 '사동 표현 적용하기'에서 잡지의 한 부분, 텔레비전 뉴스의 내용, 만화 등의 다양한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고 있다. 소단원(1)의 마무리인 '사동 표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 부분에서는 삼촌과 조카의 대화 내용을 듣기자료로 제시하여 '듣기'와의 통합 활동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고자 한 점이 눈에 띄게 보였다.

이어지는 소단원(2) 피동 표현에서도 숲이 다양하게 쓰이는 사진을 자료로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한 후 텔레비전 뉴스 보고 자료, 책 표지, 담화 자료, 광고, 올림픽 야구 중계 해설 듣기 자료, 사진 등등의 실제적 과제를 통해 피동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형성 평가'는 1, 2, 3 단계로 나누고 해결 결과에 따라 '자기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여 창의성이 돋보이는 평가 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심화 학습'에도 다양한 사진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 실제적 과제 사용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성 교실' 부분에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이용하여 한 편의 짧은 이야기를 학습자들로 하여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고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이제까지 학습한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진표 모양을 도식화하여 전체적인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도록 제시한 점 또한 눈에 띄었다. 그리고 수행 평가와 참고 자료 까지 안내하고 있어 교사가 수업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한 부분도 살펴 볼 수 있었다.

천재교육(노미숙)<sup>12)</sup> 은 전체 9.5%의 비율로 선정되고 있으며 중학교 1학

---

12) 이하 편의상 [천재\_노]로 칭한다.

년 2학기 2단원 더불어 이야기 하자 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3) 사동과 피동으로 구현되어 있다. 도입부에서 ‘이 단원에서 우리는...’ 하고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성취기준으로 각 소단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천재\_노]는 대단원을 재담, 대화, 사동과 피동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이들 소단원은 ‘더불어 이야기 하자’라는 대단원의 목표 아래 각각 구현되어 있다. 소단원(3) 사동과 피동은 도입학습에서 먼저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동기유발로 삽화를 제시하여 ‘물 먹이는 곳’, ‘물 먹는 곳’이라는 표지판을 보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고 있다. 또 두 신문기사의 제목을 보고 무엇이 더 강조되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활동을 통해 동기유발을 하는데 한 기사의 제목은 ‘경찰, 현대판 홍길동 붙잡다.’로, 다른 기사의 제목은 ‘현대판 홍길동, 경찰에 붙잡히다.’로 제시하여 두 문장의 의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학습활동으로 들어가면 먼저 ‘사동 표현 알아보기’라는 제목 아래 주동문과 사동문의 뜻을 알아보는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만화를 삽입하였으나 그 내용이 학생들의 생활과 어울리는 실제적 과제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후로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이 이어지고 실제 문제를 통해 의미 차이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구성해 놓고 있다. 또 이어지는 학습활동에서 사동 표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에서는 엄마와 학생의 일상 대화를 직접 대본 형식으로 실어두어 사동 표현과 주동 표현의 관점의 차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실제적 과제 사용이 상당히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화의 내용도 실제 중학생과 엄마 사이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제시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활동에서는 신도시 광고를 제시하고 사동 표현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또한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실제적 과제 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피동 표현에 알아보기’에서는 먼저 능동문과 피동문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학습자가 직접 바꿔보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피동 표현의 효과를 알아보는 활동에서 현아와 민영으로 대표되는 중학교 여학생 두 명의 대화를 대본 형식으로 실어 놓고 있다. 현아와 민영의 대화를 통해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하는데 이 역시 실제 대화 상황 안에서 피동 표현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으로 실제적 과제 사용이 두드러진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후에 뉴스 방송의 대본을 실어두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피동 표현이 많이 쓰이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활동을 구성해 이 또한 실제적 과제 구성이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마무리’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사동과 피동 표현에 대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찾도록 하고 ‘자기점검’을 통해 학습을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다. 대화 상황을 대본 형식으로 제시하여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고자 한 시도가 돋보이는 단원으로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sup>13)</sup>은 6.6%<sup>14)</sup>의 선정률로 중학교 1학년 2학기 3단원 의도와 표현이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딤\_이]는 ‘의도와 표현’이라는 대단원의 제목 안에 관용표현과 사동과 피동 표현을 함께 학습하도록 해서 문법과 화법

13) 이하 편의상 [디딤\_이]로 칭한다.

14) 통계자료에 의하면 중학교 국어교과서 선정률 5위는 천재교육(김대행) 중학교 국어나, 살펴보고자 하는 사동과 피동 단원이 천재교육(김대행)에서는 ‘생활국어’에 구현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6위인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로 살펴보게 되었다. ‘생활국어’는 ‘국어’와 함께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두 교재의 기본성격이 달라 ‘국어’와 ‘생활국어’의 단원구성양상을 동일선상에 두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생활국어’는 반복학습을 통한 복습이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 다양한 문제 제시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생활국어’에 대한 분석은 미루고 ‘국어’ 교과서에 대한 분석에만 중점을 두기로 한다.

이 어우러지도록 해 놓은 점이 인상적이다. 도입부분의 ‘단원의 길잡이’에서는 먼저 닭이 지렁이를 밟은 상황의 삽화를 싣고 사동·피동 표현과 관용표현이 함께 학습될 수 있도록 대화를 구성하고 있다. 이는 발화상황에서 표현이 어떤 의도를 포함하고 있음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학습활동을 통해 그 의도를 학습할 것임을 예고한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나의 실력 알아보기’에서는 승현이가 쓴 일기의 일부를 싣고 있다. 이는 학생이 쓴 일기를 학습자료로 사용함으로써 실제적 과제 사용의 양상을 보여준다. 소단원(2)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으로 넘기면 ‘다가서기’에서 마우리츠 에스허르의 ‘그리는 손’이라는 석판화 작품의 삽화를 싣고 한쪽은 ‘손이’ 무언가를 그린다는 점에, 다른 한쪽은 무언가가 ‘손을’ 그린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문에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라는 제목의 한 편의 글을 통해 그 표현 의도를 이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글 속에 구성된 예문들이 실제적 과제 사용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다. 입장을 달리해서 쓴 두 개의 일기를 비교해보고 이야기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주어를 달리 선택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두 사진의 초점을 비교하거나 신문에 실린 두 기사문을 읽고 그 둘을 비교해 보는 학습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적 과제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한 편의 글을 통해 사동과 피동 표현의 의도를 학습할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어지는 ‘학습활동’은 ‘꼼꼼히 읽기’와 ‘목표 확인하기’, ‘시야 넓히기’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꼼꼼히 읽기’와 ‘목표 확인하기’는 앞서 지문을 통해 공부한 내용을 연관된 예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야 넓히기’는 예문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여 실제 생활에 맞는 보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친구의 생일에 있었던 대화 내용이나 친구와 놀다 도자기를 깨뜨린 상황의 예문 등 다양한 실제적 과제 사용을 보여준다. 이어지는 ‘어휘력 키움터’를

지나 ‘단원의 마무리’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빈칸을 채워 완성하는 형식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이상 [디딤\_이]에서는 실제적 활동과제를 사용하여 한 편의 글을 구성한 것이 인상적이다.

## (2) 균형적인 학습맥락 제공의 측면

[천재\_박]에서는 ‘사동 · 피동 표현’이 ‘5. 언어의 세계’라는 대단원 안에 소단원 ‘(3)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세계’라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 사동 · 피동 표현이 학습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소단원(1)은 ‘공감하며 읽기’이고 소단원(2)는 ‘맥락에 맞게 읽기’이므로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역시 다양한 상황적 맥락을 제시하려하고 있으나, 본문이 ‘어머니의 편지와 감’이라는 한 편의 담화를 사동 표현 · 피동 표현의 학습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맥락의 연결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목표학습’에서 뉴스 보도문이나 만화를 제시하여 실제적 맥락을 통한 표현 ·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을 꾀하려 하고 했지만 양이 너무 적어 다양하지가 않고 맥락 제공에 미흡한 모습을 보인다. [천재\_박]은 대단원 전체가 하나의 담화 자료를 통해 학습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담화라는 실제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좋으나 그 자료가 얼마나 학습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지,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지는 내용만 가지고 부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

[비상\_조]에서도 역시 [천재\_박]과 비슷하게 사동 · 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을 대단원 ‘3. 매체와 우리들의 생활’ 안에 소단원‘(1) 우리들의 언어생활’로 구현되어 있다. 담화 자료인 ‘영호는 누가 시켜야만 하는 아이?’를 제시하고 사동 · 피동 표현의 지나친 사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글의

내용은 학습 목표와 부합하고 전체적인 학습 내용과 맞는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용이 지나치게 사동·피동 표현 과다 사용의 문제점에만 치우쳐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나 효과 등의 학습 내용을 다루는 비중은 현저하게 낮다. 따라서 맥락의 제공이 다양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단원이 ‘매체와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동·피동 표현 보다는 소단원(3)의 매체에 대한 학습 내용이 자료제시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활동과 맥락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단원을 구성하는 소단원 하나하나의 비중이 고르지 못하고 한 쪽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래서 맥락도 다양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학\_김]에서는 일단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학습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라는 대단원으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살펴 본 다른 교과서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자료와 상황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 소단원(1)과 (2)의 비중이 비교적 비슷하고 ‘원리학습’을 먼저 제공하면서 소단원을 시작하기 때문에 배경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도 하나의 지식 맥락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학\_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개정 교육과정에 아주 부합하도록 교과서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활동과 풍부한 자료의 제시를 통해 학습과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하여 지루하지 않은 문법수업이 되도록 한 것이다. 맥락을 제공함에 있어서도 학습자 실생활에 맞춘 다양한 측면에서 자료를 제시하여 사고를 확장하도록 하고 있고 듣기와 통합 학습을 구성했다는 점 또한 영역적인 맥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형성 평가와 자기 점검 역시 학습자 스스로 자기조절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 다양한 맥락에서의 학습 결과를 확인하여 심화학습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단원의 마무리’에 제시된 대진표 모양의 마인드맵은

학습자가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머릿속에 다양한 맥락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학습내용의 양이 많아 학습자들이 버겁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천재\_노]에서는 사동과 피동에 대해 그 개념이나 지식적 맥락 보다는 표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어 맥락을 구성했다. ‘더불어 이야기 하자’라는 대단원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제시하였고 실제 있음직한 대화, 신문, 광고 등의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기 위한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왜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지, 왜 매체에서는 피동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 표현 의도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어 활동을 구성하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지식·개념 맥락의 비중을 지나치게 적게 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의 내용을 아주 적게 구성했는데, 달리 생각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동과 피동을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상황학습에서 강조하는 맥락은 학습자를 둘러싼 지식·개념이 어우러진 국어 생활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식·개념의 환경적 맥락이 부족해 학습 비중이 불균형하다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딤\_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동과 피동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보다는 그 표현 효과를 위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대단원의 제목도 ‘의도와 표현’으로 설정하여 표현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갖는 의도의 차이점을 알도록 하였다. 더욱이 [디딤\_이]에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이 이루어지는 문법적 환경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식·개념의 맥락을 지나치게 간과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 또한 보인다. 그러나 표현에 기반을 둔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면서 그 문법적 표현 효과에 대한 학습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탁월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보아 5종의 교과서에서는 지식·개념의 맥락의 비중을 적게 잡아 구현하고 있었으며 주로 표현·의도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서 맥락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지식·개념의 맥락과 표현·의도의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5개의 교과서가 주로 지향하는 맥락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5종 교과서별 사동과 피동 표현 단위 주요 맥락

|   | 출판사    | 대표저자 | 주요 맥락(사용 자료)            |
|---|--------|------|-------------------------|
| 1 | 천재교육   | 박영목  | 표현·의도(담화자료 사용)          |
| 2 | 비유와 상징 | 조동길  | 표현·의도(담화자료사용)           |
| 3 | 교학사    | 김형철  | 지식·개념,<br>표현·의도(활동자료사용) |
| 4 | 천재교육   | 노미숙  | 표현·의도(활동자료사용)           |
| 5 | (주)디딤돌 | 이삼형  | 표현·의도(활동자료사용)           |

### (3) 귀납적 탐구학습 가능성의 측면

[천재\_박]은 ‘학습 활동’에서 목표학습을 통한 개념을 귀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능동과 피동의 개념, 주동과 사동의 개념을 활동을 통해 알아보고 마지막에 정리된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이 다양하지 않아 자발적인 탐구학습으로 이어지기에 미흡하고 한 편의 글을 제시하고

표현을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어 발산적인 탐구학습이 되기 어렵다.

[비상\_조]에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개념이나 만드는 원리에 대한 학습 내용은 아예 없고 지나친 사동·피동 표현 사용의 문제점에만 치중하여 학습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제시한 담화 자료의 내용도 주제가 너무나 뚜렷하여 다른 의문점이나 탐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 탐구학습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보인다. 다만 ‘선택 학습’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교사의 재량에 따라 귀납적 탐구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학습 과제를 선택하여 수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유동성이 있다.

[교학\_김]에서는 활동 말미에 ‘정리’라는 박스를 두어 그 안에 앞선 활동을 개념으로 정리하는 귀납적 구성을 보인다. 다양한 자료와 맥락을 제공하고 탐구학습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원리 학습’을 통해 미리 지식을 전달하고 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탐구학습의 발판도 제공하는 셈이고 스스로 자기조절이 가능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과서가 탁월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학습할 내용이 많고 다른 성취기준과의 연결이 부족하여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학습하게 되는 한계점이 있다.

[천재\_노]에서는 학습활동의 각 학습 말미에 박스를 두어 그 안에 앞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개념정리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학습활동에서 주동 표현을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을 하고 나면 마지막 박스 안에 두 가지 방법으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음을 귀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피동 표현을 알아보는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로 활동 말미에 능동문과 주동문의 차이를 박스 안에 개념으로 제시하고 능동 표현을 피동 표현으로 바꾸는 활동 후에 두 가지 방법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음을 귀납적으로 제시한다.

[디딤\_이]는 탐구학습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표현 의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귀납적 탐구학습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표현 의도의 차이를 알고 ‘단원의 마무리’에서 확인 차 빈칸을 완성하는 학습활동이 구성되어 있지만 귀납적으로 어떤 문법적 개념을 제시하거나 앞서 배운 문법적 지식을 통해 탐구학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본문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통해 실력을 확인하는 정도는 빠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디딤\_이]는 귀납적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더욱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표-3> 5종 교과서별 사동과 피동 표현 단위 전개 방식

|   | 출판사    | 대표저자 | 단위 전개 방식          |
|---|--------|------|-------------------|
| 1 | 천재교육   | 박영목  | 귀납적 제시            |
| 2 | 비유와 상징 | 조동길  | 대체로 귀납적 제시        |
| 3 | 교학사    | 김형철  | 연역적, 귀납적 제시 함께 사용 |
| 4 | 천재교육   | 노미숙  | 귀납적 제시            |
| 5 | (주)디딤돌 | 이삼형  | 대체로 귀납적 제시        |

#### (4) 협동학습 가능성의 측면

[천재\_박]에서는 협동학습을 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활동을 찾기 어려웠다. 주로 담화 자료를 통해 표현을 찾고 물음에 답하는 과제 해결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딱히 협동학습으로 하지 않고 개별학습으로만 진행해도 되는

과제가 대부분이었다.

[비상\_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협동학습으로 적당한 활동이 별로 없었지만 자료로 제시한 담화의 내용에서 자신의 장점을 쓴 글과 텔레비전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에 사용된 잘못된 표현들을 찾아보자는 활동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 교사가 이를 활용하여 협동학습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보였다. 담화의 상황을 실제 교실 수업 상황에 적용하여 협동학습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학\_김]에서도 역시 협동학습으로 할 만한 적당한 활동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역시 책 표지나 휴대 전화 문자 창, 광고문, 잡지 등의 자료를 주고 활동을 제시한 학습내용을 보고 교사가 재량껏 협동학습을 구성할 수는 있을 것이다.

[천재\_노]에서 역시 협동학습을 따로 구성해두지 않았으나 구성된 활동이 주로 생각해 보거나 이야기 해보는 활동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협동학습으로 꾸밀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질문 형태나 빈칸 형태가 아닌 학습 활동은 그냥 생각만 하고 넘어가거나 그 생각마저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대다수이므로 굳이 따로 협동학습을 계획할 필요 없이 교과서에 활동으로 제시된 학습만 협동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수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디딤\_이]에서도 협동학습을 명시하는 부분은 한눈에 찾기 어려웠다. 이 교재의 단원에서도 역시 교사의 재량껏 협동학습을 구성할 수 있는데, 본문의 내용 중 초점을 달리하여 찍은 두 장의 사진을 통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의도 차이를 알 수 있게 해 놓은 부분을 협동학습으로 재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문법적 표현의 특수성 때문인지 교과서 단원 안에서는 협동학습으로 구성해 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상으로 5종 교과서를 상황학습에 따른 교과서 분석 기준 4가지에 맞춰 분석해 보았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과 적합성 등이 여러모로 잘 어우러져야 한다. 선정한 교과서 5종 각각을 분석하면서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상황학습이 가능한 활동 및 과제의 적절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어떤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를 떠나서 상황학습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문법 교육을 진행하는 일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문법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법적 개선을 꾀하자면 상황학습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여러 종에서도 보이다시피, 학습자로 하여금 모종의 언어적 성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에서는 앞서 설정한 4가지의 상황학습의 기준을 토대로 그 기준을 수정·보완하는 형태로 사동·피동 표현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Ⅲ. 상황학습이론을 통한 ‘사동·피동표현’

#### 교수·학습 방법 제안

국어과 교수·학습은 국어과 수업시간에 교사와 학습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도적 활동이요, 국어 교육과정의 1차 구현 교재인 국어 교과서를 가운데 두고 교사와 학습자가 함께 이루어내는 생산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최미숙 외, 2008) 따라서 앞서 교육과정과 교과서와의 연계성을 통해 상황학습으로의 가능성을 살펴 본 바에 의해 실제 수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상황학습이론을 통한 ‘사동·피동표현’의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좋은 국어 수업’의 요소는 무엇일까? 이주섭 외(2008)는 국어 수업 참여 관찰을 통해 좋은 국어과 수업요소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협동학습을 활발한 의미구성 경험으로 제공한다. 둘째, 수업과 수행 평가의 상호 의존을 통해 평가의 본질을 지향한다. 셋째, 대중 매체의 활용을 통해 대중문화를 수용하여 국어과의 외연을 확장한다. 넷째, 인성 교육의 실천과 지역 사회의 언어문화를 반영한다. 다섯째,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학습 과제 해결을 위한 모듈 구성 및 운영, 학습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자료의 효율적 활용, ICT활용을 통한 수업 효율성 제고, 학생들의 생활 세계를 반영한 수업을 구성한다.

이와 같은 ‘좋은 국어 수업’의 요소를 참고하여 7학년 ‘사동·피동표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방향과 실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다.

## 1.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방향

### 1) 수업 설계를 위한 목표 중심 수업 설계 모형 제시

임지룡 외(2010)에서는 수업 설계에 있어서 영역별 성격을 살리며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 영역별, 교육 내용별 특성을 고려한 수업 설계는 교사에게나 학습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여 교육적으로 그다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타당한 주장으로,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영역별, 내용별 특성을 살려 수업을 설계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란 교사나 학습자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법 수업에 대한 설계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목표’를 가장 우선시한 임철성(2008)의 수업 설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타당한 주장으로 앞서 살펴 본 교육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년별 내용의 성취기준은 도달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하여 목표 중심의 수업 설계를 기준으로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방향을 잡고자 한다. 이어질 실제 교수·학습 과정안 구현에 있어서 전체적인 방향은 목표 중심 수업 설계에 따른다. 임철성(2008)이 제안한 목표 중심의 수업 설계 모형은 다음과 같다.

<표-4> 목표 중심의 수업 설계

| 목표  | 진단   | 계획  | 지도와 평가   | 정리와 발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기준 분석</li> <li>· 대단원 학습목표의 설정</li> <li>· 학습목표의 계열화</li> <li>· 소단원 학습목표의 구체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수 학습 능력 진단</li> <li>· 부족한 능력 보강</li> <li>· 학습 목표 조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자료의 선정</li> <li>· 소단원 학습 자료의 구성</li> <li>· 소단원 운영 계획의 수립</li> <li>· 학습 활동 계획의 수립</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단원별 학습 지도</li> <li>· 소단원별 형성 평가</li> <li>· 점검과 보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단원 정리</li> <li>· 교실 밖 확산</li> </ul> |

2)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상황과 상황학습 이론에 따른 수업 설계 방향

임지룡 외(2010)에서는 구성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의 조성 문제라고 말한다. 이는 구성주의적 교수·학습이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지식 구성 과정을 중시하는 만큼, 그러한 지식 구성과 학습이 가능하도록 상황과 환경을 적절히 조성해 주는 문제 역시 중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러한 상황 환경 조성은 교사-환경-학습자의 관계 상황이 점차 교사에게서 학습자에게로 그 주도권이 이양되면서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고 말하며, 즉 교수학적 상황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동기를 가지고 선택된 문제를 받아들이고 답함으로써 교사의 중재나 조력 없이도 관련된 문법 개념이나 문법 지식을 생성하고 획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점차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부르소는 ‘비교수학적 상황(adidactical situation)’이라고 부르며 비교수학적 상황이란 곧 교수학적 의도는 존재하나 이를 학습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가 문제의 해결을 학습자에게 위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상황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상황학습 이론의 특징에 따른 수업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앞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황학습이 가능한 수업 요소를 살펴 본 결과에 따르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눈에 띄게 지적할 수 있는 점이 있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학습의 부족이다. 협동학습은 문법 수업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믿고 있지만 이는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 내용과 상황에 따라 충분히 실행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협동학습의 효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어느 단계에서든 협동학습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둘째, 균형적인 학습 맥락 제공의 미흡이다. 모든 교과서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사동·피동 표현 단원을 구현한 교과서의 대부분은 학습 맥락의 제공이 한 쪽으로 편중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문법교육은 그 문법적 발화의 표현·의도의 맥락도 중요하지만 지식·개념의 맥락을 지나치게 소홀히 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문법 학습 맥락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지식·개념의 맥락과 표현·의도의 맥락은 균형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실제 여러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였고 이러한 측면을 수정·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교사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수업에서 교사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한데 문법 수업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법은 지식의 전달이 타 영역에 비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상황학습에서 교사의 역할인 학생들의 인지적 발판 형성, 코칭으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자극을 제공하고 활동이나 협동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책임을 학습자에게로 이양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알아본 바에 따라 7학년 ‘사동·피동 표현’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을 실제 제시해 보도록 한다.

## 2.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실제

교수·학습 방법 구현의 실제는 앞서 살펴 본 목표 중심 수업 설계를 일부 압축하여 적용하고, 교수학습 과정안 제시에서는 교과서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상황학습 이론의 특징으로 수정·보완하여 구현해 보고자 한다.

### (1) 단원의 학습 목표 분석

구현하고자 하는 성취기준 ‘[7-문법-(4)]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를 대단원의 학습 목표, 소단원의 학습 목표, 소단원의 구체적인 목표 셋으로 나누어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세우고자 한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5> 학습 목표

| 대단원의 학습 목표                      | 소단원의 학습 목표   | 소단원의 구체적인 목표                    |
|---------------------------------|--|---------------------------------|
|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1. 사동 표현의 개념과 의미 해석의 차이,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1) 사동 표현 개념 이해하기               |
|                                 |  | (2) 사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                                 |  | (3) 사동 표현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                                 | 2. 피동 표현의 개념과 의미 해석의 차이,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4) 피동 표현 개념 이해하기               |
|                                 |  | (5) 피동 표현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지는지 이해하기 |
|                                 |  | (6) 피동 표현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                                 | 3.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활용하고 두 표현의 차이를 구분하여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 이해하기 | (7)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알고 구분하기   |
|                                 |  | (8) 잘못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이해하기       |

[7-(문법)-4]의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의 예를 각각 대단원의 학습 목표와 소단원의 학습 목표로 이원화하고 내용요소의 예 3개를 다시 구체적인 소단원의 학습 목표로 세분화 하였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을 이원화한 이유는, 사동과 피동은 그 문법 실현 방법이 비슷할 뿐이지 실은 전혀 다른 문법현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동과 피동을 함께 학습하는 것 보다는 둘의 개념을 분리하되 내용요소의 예를 통한 내용학습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각 개념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목표 여러 개를 달성하면 대단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2) 수업 지도 계획

전체적인 단원 수업 계획은 한 차시 분을 중학교 수업 시간 45분으로 하고 사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피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분 및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 이해하는 수업 1차시 해서 총 3차시 분량으로 계획하였다. 각 소단원의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할 활동에 수정·보완되어야 할 상황학습 이론의 특징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차시별 주요내용과 교수 학습 자료와 평가 방법을 제시한다.

<표-6> 수업 지도 계획

| 대단원 |            | 표현 의도에 따라 사동·피동 표현이 달리 사용됨을 안다. |                                    |                    |          |
|-----|------------|---------------------------------|------------------------------------|--------------------|----------|
| 차시  | 소단원        | 주요 학습 내용                        | 교수-학습 내용                           | 학습 방법              | 평가방법     |
| 1   | 사동 표현 이해하기 | 사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사동 표현에 대한 개념, 사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설명     | 강의법/<br>교사의 코칭/귀납적 | 교과서, 학습지 |
|     |            | 사동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해석 이해하기       | 교과서를 보고 사동 표현을 찾아 표현 효과를 이해하도록 유도. |                    |          |

|   |  |                           |   |                          |                |
|---|--|---------------------------|---|--------------------------|----------------|
|   |  | 사동 표현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모둠을 나누어 협동학습으로 진행 / 다양한 생활 속 소재의 문장을 활용하여 사동 표현을 찾고 그 심리적·사회적 특성을 이해하여 활동지를 작성·발표 | 탐구 학습 / PP T자료 / 활동지     |                |
| 2 | 피동 표현 이해하기                             | 피동 표현의 개념 이해하기            | 피동 표현에 대한 개념,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 설명  | 강의법 / 교사의 코칭 / 귀납적 탐구 학습 | 담화자료, 교과서, 학습지 |
|   |  | 피동 표현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해석 이해하기  | 교과서를 보고 피동 표현을 찾아 표현 효과를 이해하도록 유도.  | PP T자료 / 활동지             |                |
|   |  | 피동 표현의 심리적·사회적 특성 이해하기    | 모둠을 나누어 협동학습으로 진행 / 신문, 잡지 등을 보고 피동 표현을 찾아 심리적·사회적 특성을 이해하여 활동지를 작성·발표            | PP T자료 / 활동지             |                |
| 3 |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알고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 이해하기 |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알고 구분하기 | 짝과 함께 협동학습으로 진행 / 대화를 읽고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이해하여 활동지를 작성                           | 강의법 / 교사의 코칭 / 귀납적 탐구 학습 | 담화자료, 교과서, 학습지 |
|   |  | 잘못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알고 고치기   | 짝과 함께 협동학습으로 진행 / 사용 설명서를 읽고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을 찾아 고쳐 쓰는 활동지를 작성                       | 협동학습 / 활동지               |                |

(3) 교수·학습 과정안

교수·학습 과정안은 앞의 수업 지도 계획안에 따라 차시별로 제시한다. 또한 상황학습 이론 적용을 위해 기존의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를 좀 더 분화하여 ‘도입(문제설정)-기본학습-탐구학습-발전학습-정리 및 평가’의 5단계로 나누어 과정안을 구성하도록 한다.

1) 1차시

1차시는 사동표현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동과 사동의 의미를 안다. 둘째,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사동 표현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표-7> 교수·학습 과정안 1차시

| 교과   | 국어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시간 | 45분 |     |
|------|---|---|---------|----|-----|-----|
| 단원명  | 사동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   |         |    |     |     |
| 학습목표 | 1. 주동과 사동의 의미를 안다.<br>2.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br>3. 사동표현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         |    |     |     |
| 과정   | 학습내용  | 학 습 활 동   |         |    | 비 고 | 시 간 |
|      |   | 교 사 활 동   | 학 생 활 동 |    |     |     |
| 목표설정 | 전 시 예) “동생이 옷을 입었다”를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며 전시 학습의 중요개념을 상기시킨다.<br>주동이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 · 인사 및 수업상태 확인<br>· 인사를 한다.<br>·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꾼다.<br>· 교사의 질문에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대답한다. |         |    | 2분  |     |

|          |   |  |    |    |
|----------|---|--|----|----|
|          | 기가 직접 하는 것.<br>사동이란 주어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  |  |    |    |
| 학습 동기 유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신노래가사를 통해서 본시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li> <li>예) 소녀시대 런데빌런</li> </ul> <p>똑바로 해 넌 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뿐<br/>그 동안 <u>난 너 뺨에 감빡 속아서</u> 넌 어간 거야</p> <p>네가 나를 감빡 속였어(속였다).(사동문)<br/>내가 너 뺨에 감빡 속았어.(주동문)</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시문장을 보고 느끼는 바를 생각해보고 본시학습을 예측해본다.</li> </ul> | 2분 |    |
| 학습 목표 제시 | <p>학습목표제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동과 사동의 의미를 안다.</li> <li>2.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li> <li>3. 사동표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목표를 확인한다.</li> </ul>                        | 2분 |    |
| 기본 학습    | <p>기본 학습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동과 사동의 의미를 설명한다.<br/>주동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br/>사동 :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li> </ul>              |    | 3분 |
|          | <p>기본 학습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예를 제시하여 주동문이 사동문이 되는 형태상 변화를 설명한다.<br/>예) (1)철수가 옷을 입었다.(주동문)<br/>어머니가 철수에게 옷을 입혔다.(사동문)<br/>(2) 은지가 밥을 먹었다.(주동문)<br/>어머니가 은지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사동문)<br/>(3) 물이 유리잔에 가득 찼다.(주동문)</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li> </ul>              |    |    |

|               |               |   |  |   |
|---------------|---------------|---|--|---|
|               |               | (친구가) 물을 유리잔에 가득 채웠다.(사동문)  |  |   |
| 기본<br>학습      | 기본<br>학습<br>3 | <p>3. 사동문 형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p> <p>1) 주동 표현에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을 붙여 만든다.</p> <p>예) 속다 : 속이다, 묻다 : 묻히다, 듣다 : 들리다, 말다 : 말기다, 지다 : 지우다, 돌다 : 돌구다, 낮다 : 낮추다</p> <p>2) 주동 표현에 ‘-게 하다’를 붙여 만든다.</p> <p>예) 차를 정지하게 했다.</p> <p>4. 사동 표현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p> <p>예) 시키는 행위를 강하게 드러내려는 심리를 반영,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심리를 표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의도로도 사용.</p> | · 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 5분  |
| 탐구<br>학습<br>1 | 모둠<br>활동      | <p>1. 활동 1) 6명이 1개조로 모듬을 구성하여 신문을 가지고 기사 하나를 골라 사동 표현의 사회적·심리적 특징을 통해 표현 의도를 해석하도록 한다.</p> <p>(신문 기사 예시)</p> <p><u>한국 경제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제 유가가 떨어져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웠다. 또한 자동차와</u></p>   | · 신문을 가지고 기사 하나를 골라 나눠 준 활동지를 완성해 나간다. | <p>조원들이 모두 활동하게 하고 발표를 시킨다.</p> <p>5분</p> |

|         |       |  |  |                                    |     |
|---------|-------|--|--|------------------------------------|-----|
|         |       | 조선 경기 호황으로 수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12퍼센트가 늘어 내수경기도 좋아지리라 예상된다.                          |  |                                    |     |
|         |       | 2. 활동 2) 활동 1의 대본을 듣고 사동표현을 찾고 '-게 하다'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들게 한다.                    | · 활동 1의 주동문에 '-게 하다'를 이용하여 사동문을 만들어 본다.  |                                    | 2분  |
| 탐구 학습 2 | 모둠 활동 | 3. 활동 1과 활동 2의 변화를 통해 사동 표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말해보게 한다.                           | · 활동 1와 활동 2의 예문을 통해 느낌의 차이를 말해본다.<br>※ 스스로 하는 행위보다 시키는 행위를 강하게 드러내려고 함.<br>※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려는 심리를 나타냄.<br>※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있음. |                                    | 5분  |
| 발전 학습   | 개인 활동 | · 사동사 7개를 제시하여 짧은 글 짓기를 시키고 말해보게 한다.<br>예) 속이다, 입히다, 올리다, 맡기다, 지우다, 솟구다, 낮추다 | · 제시된 사동사를 사용하여 글짓기를 하고 발표를 한다.  | 발표 후 피드백 제공, 학습지 견고 찜삭 후 다음 시간에 돌려 | 15분 |

|         |       |                           |                               |     |    |
|---------|-------|---------------------------|-------------------------------|-----|----|
| 정리 및 평가 | 정리    | · 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            | · 학습목표를 보며<br>본시 학습내용을 파지시킨다. | 준다. | 2분 |
|         | 차시 예고 |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예고한다. | · 차시 학습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       |     | 2분 |

이상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통해 1차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동표현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표-8> 사동 표현 활동지 예시

## 사동 표현 활동지

1. 다음 제시된 ‘-히-, -리-, -기-, -우-, -구- -추-’를 이용하여 밑줄 친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꿔보세요

1. {-히-}

<구운몽에서>

성진이 돌아와 밤에 혼자 빈방에 누우니 팔선녀의 말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얼굴 빛은 눈에 아른거려 앞에 앉아 있는 듯, 옆에서 당기는 듯 마음이 황홀하여 진정 치 못하다가 문득 생각하였다. “남자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고....!”

성진은 공자와 맹자의 글을 읽다.

→ \_\_\_\_\_

2. {-리-}

<춘향전에서>

"이제 우리 춘향이 **살았구나!**"

→ \_\_\_\_\_

3. {-기-}

<노래 동요 - 짹짹>

엄마 앞에서 짹짹  
아빠 앞에서 짹짹  
엄마 단숨에 잠자고  
아빠 주름살 펴져라~  
햇님 보면서 짹짹  
도리도리 짹짹  
우리 엄마가 **웃는다**  
우리 아빠가 **웃는다**

→ \_\_\_\_\_

4. {-우-}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의 나귀는 짐을 지었다.

→ \_\_\_\_\_

5. {-구-}

<만화영화 ‘은하철도999’ 노래가사>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우주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쏟아오르네(쏟는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은하철도999  
기차는 은하수를 건너서 밝은 빛의 바다로  
끝없는 레일위에 햇빛이 부서지네  
꿈을 좇는 방랑자의 가슴에선 찬바람일고  
엄마 잃은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차있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999 은하철도999~

→ \_\_\_\_\_

6. {-추-}

지금 바깥온도가 많이 낮다.

→ \_\_\_\_\_

2. 1번 활동에서 바꿔본 사동문을 {-게 하다}의 형태로 각각 바꿔 보세요.

예>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였다.

1. → \_\_\_\_\_

2. → \_\_\_\_\_

3. → \_\_\_\_\_

4. → \_\_\_\_\_

5. → \_\_\_\_\_

6. → \_\_\_\_\_

## 2) 2차시

2차시는 피동표현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으로 학습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안다. 둘째,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피동문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대해 알 수 있다.

<표-9> 교수·학습 과정안 2차시

| 교과      | 국어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시간  | 45분 |  |
|---------|---|--|---|-----|-----|--|
| 단원명     | 피동표현에 대해 알아보아요.   |  |   |     |     |  |
| 학습목표    | 1.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안다.<br>2.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br>3. 피동문의 사회적·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   |     |     |  |
| 과정      | 학습내용  | 학 습 활 동  |   | 비 고 | 시 간 |  |
|         |   | 교 사 활 동  | 학 생 활 동   |     |     |  |
| 목 표 설 정 | 전시 학습 확인  | · 인사 및 수업상태 확인<br>예) “고양이가 쥐를 물었다”를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확인하며 전시학습의 중요개념을 상기시킨다.<br>능동이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br>피동이란 어떤 행위나 동작이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   | · 인사를 한다.<br>·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다.<br>· 교사의 질문에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대답한다. |     | 2분  |  |
|         | 학습 동기 유발  | · 아침 뉴스를 통해서 본시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br>예) 간밤에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도심 한복판의 나무가 바람에 꺾인 채 쓰러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와 수도가 끊기는 사태가 일어났고 주민들은 태풍의 위협을 피해 근처 대피소로 이동하였습니다.<br><br>바람이 나무를 꺾다.(능동문)<br>나무가 바람에 꺾이다.(피동문) | · 예시문장을 보고 느끼는 바를 생각해보고 본시학습을 예측해본다.                                    |     | 2분  |  |
|         | 학습 목표 제시  | 학습목표제시<br>1.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안다.<br>2.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다.<br>3. 피동문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 · 학습목표를 확인한다.   |     | 2분  |  |

|          |               |  |                         |    |
|----------|---------------|--|-------------------------|----|
| 기본<br>학습 | 기본<br>학습<br>1 | 1.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설명한다.<br>능동 : 주어가 동작을 직접 하는 것.<br>피동 : 어떤 행위나 동작이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  | · 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 3분 |
|          | 기본<br>학습<br>2 | 2. 예를 제시하여 능동문이 피동문이 되는 형태상 변화를 설명한다.<br>예) (1)우리가 철수를 반장으로 뽑았다.(능동문)<br>철수는 우리에게 반장으로 뽑혔다.(피동문)<br>(2) 언니가 문을 닫았다.(능동문)<br>문이 바람 때문에 닫혔다.(피동문)<br>(3) 전화를 끊다.(능동문)<br>전화가 끊어지다.(피동문)  | · 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    |
| 기본<br>학습 | 기본<br>학습<br>3 | 3. 피동문 형성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br>1) 능동 표현에 ‘-이-, -히-, -리-, -기-’ 등을 붙여 만든다.<br><br>예) 꺾다 : 꺾이다, 뽑다 : 뽑히다, 물다 : 물리다, 끊다 : 끊기다<br><br>2) 능동 표현에 ‘-어/아지다’를 붙여 만든다.<br>예) 전기가 끊어지다.<br><br>4. 피동 표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br><br>예) 주어가 원하지 않은 일이나 행위를 입게 된다는 심리를 반영, 상황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남을 나타내려고 할 때,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사용. | · 교과서를 보며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 | 5분 |

|                |   |   |                                 |           |
|----------------|---|---|---------------------------------|-----------|
| <p>탐구 학습 1</p> | <p>1. 6명이 1개조로 모듬을 만들고 다음 뉴스보도를 보고 피동표현을 찾아보게 한다.</p> <p>(듣기 대본 예시)</p> <p>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지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여전히 춥습니다. 이렇게 겨울 외투에 목도리, 장갑까지 한겨울 옷차림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몸이 으슬으슬 떨립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9도나 낮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 8도입니다.</p> <p>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대관령 영하 14도, 대전 영하 5도, 대구 영하 4도로 시작하겠고, 낮에는 서울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7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로 종일 춥겠습니다.</p> <p>이번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초반쯤 풀릴 전망입니다. 추위와 함께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충남과 호남 내륙까지 눈이 확대될 것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쏟아질 것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2~5cm, 충남과 호남 내륙, 제주도에도 1~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p> | <p>· 조원 1명이 ‘-이-, -히-, -리-, -기-’중 1개를 이용하여 능동문의 예문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본다.</p> | <p>조원들이 모두 활동하게 하고 발표를 시킨다.</p> | <p>5분</p> |
|----------------|---|---|---------------------------------|-----------|

|         |       |   |  |  |
|---------|-------|---|--|--|
|         |       |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  |  |
|         |       | 2. 활동 1의 능동문에 '-어/아지다.'를 이용하여 피동문을 만들게 한다.                    | · 활동 1의 능동문에 '-어/아지다.'를 이용하여 피동문을 만들어 본다.  | 2분   |
| 탐구 학습 2 | 모둠 활동 | 3. 활동 1과 활동 2의 변화를 통해 피동 표현의 사회적, 심리적 특성을 말해보게 한다.            | · 활동 1와 활동 2의 예문을 통해 느낌의 차이를 말해본다.<br><br>※ 주어가 원하지 않은 일이나 행위를 입게 된다는 심리를 반영함.<br><br>※ 상황에 의해 어떤 일이 일어남을 나타냄.<br><br>※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음. | 5분   |
| 발전 학습   | 개인 활동 | · 피동사 4개를 제시하여 짧은 글 짓기를 시키고 말해보게 한다.<br>예) 꺾이다, 뽑히다, 물리다, 끊기다 | · 제시된 피동사를 사용하여 글짓기를 하고 발표를 한다.  | 발표 후 피드백 제공, 학습지 걷고 칠판 후 다음 시간에 돌려준다.<br>15분 |
| 정리 및 평가 | 정리    | · 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  | · 학습목표를 보며 본시학습내용을 파지시킨다.  | 2분   |
|         | 차시 예고 | ·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예고한다.                                     | · 차시학습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   | 2분   |

이상의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2차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피동 표현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표-10> 피동 표현 활동지 예시

|   |
|---|
| <h2>피동 표현 활동지</h2>  |
| <p>1. 다음 제시된 ‘-이-, -히-, -리-, -기-’를 이용하여 밑줄 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보세요.</p>  |
| <p>1. {-이-}</p> <p>나는 푸른 하늘을 <u>보다</u>.</p> <p>→ _____</p>          |
| <p>2. {-히-}</p> <p>우리는 잔디밭의 잡초들을 <u>뽑았다</u>.</p> <p>→ _____</p>     |
| <p>3. {-리-}</p> <p>양치기 소년이 양떼를 목장 안으로 <u>몰다</u>.</p> <p>→ _____</p> |
| <p>4. {-기-}</p>   |

고무줄놀이를 하는 친구들의 고무줄을 끊다.

→ \_\_\_\_\_

2. 1번 활동에서 바꿔본 피동문을 {-아/어지다.}의 형태로 각각 바꿔 보세요.

예> 포근한 날씨를 느끼다.

-> 날씨가 포근하게 느껴지다.

1. → \_\_\_\_\_

2. → \_\_\_\_\_

3. → \_\_\_\_\_

4. → \_\_\_\_\_

### 3) 3차시

3차시는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에 대해 더 알아보는 수업으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동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을 알고 고칠 수 있다.

<표-11> 교수·학습 과정안 3차시

| 교과   | 국어  | 대상   | 중학교 1학년   | 시간     | 45분 |     |
|------|---|--|---|--------|-----|-----|
| 단원명  |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에 대해 더 알아보아요.   |  |   |        |     |     |
| 학습목표 | 1.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br>2.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을 알고 고칠 수 있다. |  |   |        |     |     |
| 과정   | 학 습 활 동   |  |   |        | 비 고 | 시 간 |
|      | 학습내용  | 교사 활동  | 학생 활동   |        |     |     |
| 목표설정 | 전시학습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 및 수업상태 확인</li> <li>예) 주동이란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li> <li>사동이란 주어가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li> <li>능동이란 주어가 동작을 제 힘으로 하는 것.</li> <li>피동이란 어떤 행위나 동작이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것.</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를 한다.</li> <li>·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다.</li> <li>· 교사의 질문에 전시학습을 상기하며 대답한다.</li> </ul> |        |     | 2분  |
|      | 학습동기유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문을 통해서 본시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킨다.</li> <li>예1) 책이 잘 읽힌다.<br/>민규한테 책을 읽힌다.</li> <li>예2)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시문장을 보고 느끼는 바를 생각해보고 본시학습을 예측해본다.</li> </ul>  |        |     | 2분  |
|      | 학습목표제시  | 학습목표제시<br>1. 사동표현과 피동표현의 차이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br>2.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을 알고 고칠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확인한다.</li> </ul>   |        |     | 2분  |
| 탐구활동 | 1. 2명 짝끼리 팀을 이루어 활동지를 보고 제시된 활동을 한다.                            |  |   | 짝끼리 함께 | 10분 |     |

|                                  |   |  |  |                 |
|----------------------------------|---|--|--|-----------------|
| <p>습<br/>1</p>                   | <p>(대화문 제시)</p> <p>지민 : 오늘은 이상하게 밥이 잘 안<br/>①<u>떡</u>히네.<br/>은지 : 네가 그런 날도 있단<br/>말이야?!(웃음)<br/>지민 : (웃으면서)그러게. 아침부터<br/>속이 좀 안 좋았어.<br/>은지 : 배탈 난 게 아닐까? 이따가<br/>같이 양호실에 가보자. 그나저나<br/>저기 어항의 물고기 좀 봐.<br/>금붕어가 떡이를 먹고 있네.<br/>지민 : 떡이가 금붕어한테 ㉠<u>떡</u>히고<br/>있구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 ㉡이 피동표현인지 사<br/>동표현인지 적어 본다.</li> <li>• 형태는 같으나 쓰이는 상황<br/>에 따라 피동사도 되고 사<br/>동사도 되는 단어를 골라<br/>피동문과 사동문을 만들어<br/>본다.</li> </ul> | <p>활동<br/>하게<br/>하고<br/>발표<br/>를<br/>시킨<br/>다.</p>                     |                 |
| <p>탐<br/>구<br/>학<br/>습<br/>2</p> | <p>2. 2명 짝끼리 팀을 이루어 활동지를<br/>보고 제시된 활동을 한다.</p> <p>(활동지 제시문)</p> <p><u>휴대폰 사용 설명서</u><br/>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이<br/>준수되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br/>를 읽히세요.</li> <li>• 물에 빠뜨리거나 습기가 많은<br/>곳에서는 작동이 잘 안될 수 있습니<br/>다.</li> </ul> <p>&lt;주의 사항&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진동모드로 변경할 경우, #버튼<br/>을 3초간 길게 누르게 합니다.</li> <li>2. 갑자기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br/>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껐다가<br/>켜 봅니다.</li> <li>3. 이외의 문제 발생 시 가까운 OO<br/>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게 하십</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br/>풀어 본다.</li> <li>• 사용 설명서를 쓸 때에는<br/>'주동과 사동', '능동과 피동'<br/>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는<br/>게 좋은지 생각해 본다.</li> </ul>            | <p>짝끼<br/>리<br/>함께<br/>활동<br/>하게<br/>하고<br/>발표<br/>를<br/>시킨<br/>다.</p> | <p>10<br/>분</p> |

|                       |                    |   |   |                                       |         |
|-----------------------|--------------------|---|---|---------------------------------------|---------|
|                       |                    | 시오.   |   |                                       |         |
| 발<br>진<br>학<br>습      | 2인<br>1조<br>활<br>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앞서 수행한 활동을 통해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차이를 알고 잘 못된 사동·피동 표현의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각을 정리하여 발표를 한다.</li> </ul>        | 발표 후 피드백 제공, 학습지 견고 침삭 후 다음 시간에 돌려준다. | 15<br>분 |
| 정<br>리<br>및<br>평<br>가 | 정<br>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목표를 확인시킨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목표를 보며 본시학습내용을 파지시킨다.</li> </ul> |                                       | 2분      |
|                       | 차<br>시<br>예<br>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간단히 예고한다.</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차시학습의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ul>    |                                       | 2분      |

이상의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3차시 수업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동·피동 표현 활동지>를 활용할 수 있다.

## 사동 · 피동 표현 활동지

### 1. 다음 제시된 대화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지민 : 오늘은 이상하게 밥이 잘 안 ㉠먹히네.

은지 : 네가 그런 날도 있단 말이야?!(웃음)

지민 : (웃으면서)그러게. 아침부터 속이 좀 안 좋았어.

은지 : 배탈 난 게 아닐까? 이따가 같이 양호실에 가보자. 그나저나 저기 어항의 물고기 좀 봐. 금붕어가 먹이를 먹고 있네.

지민 : 먹이가 금붕어한테 ㉡먹히고 있구나.

#### 1) ㉠과 ㉡이 피동 표현인지 사동 표현인지 적어 보자.

• ㉠ \_\_\_\_\_

• ㉡ \_\_\_\_\_

2) 다음 <보기>에 있는 단어들은 형태는 같으나 쓰이는 상황에 따라 피동사도 되고 사동사도 된다. <보기>에서 단어를 두 개 골라 ‘예’처럼 피동문과 사동문을 만들어 보자.

<보기> 보이다, 잡히다, 업히다, 안기다, 물리다

<예> 단어 : 빨리다.

피동문 : 모기에게 피를 빨리다.

사동문 : 아기에게 젖을 빨리다.

- 단어 :
- 피동문 :
- 사동문 :

- 단어 :
- 피동문 :
- 사동문 :

## 2. 다음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 휴대폰 사용 설명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 사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읽히세요.
- 물에 빠뜨리거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작동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1. 진동모드로 변경할 경우,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게 합니다.
2. 갑자기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 전원 버튼을 눌러 휴대폰을 껐다가 켜 봅니다.
3. 이외의 문제 발생 시 가까운 OO고객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게 하십시오.

1) 이 설명서에 쓰인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 가운데 어색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 고쳐 써 보자.

- 잘못된 피동 표현 :

고쳐 쓴 표현 :

- 잘못된 사동 표현 :

고쳐 쓴 표현 :

2) 사용 설명서를 쓸 때 ‘주동과 사동’, ‘능동과 피동’ 가운데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좋을지 다음 사항을 참고해 골라 보자.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 보자.

- 사용 설명서는 누가 읽는가?
- 사용 설명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 IV. 결론

본 연구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을 통해 더 나은 문법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서,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개정 교과서 5종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서론의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문법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통계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문법교육은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들에게까지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수업으로 그 존재마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그동안 여러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 주입식 교육, 설명하고 암기하는 데 급급하기만 했던 전통적 교육 방식이 낳은 사단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문법교육의 방법적 측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고 문법 기피증을 초래했던 기존 문법 교육의 상황을 다양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에 하나인 상황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국어 수업에서 교과서가 갖는 위상이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의사소통을 매개한다는 점에 의거하여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 분석의 기준은 2007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나타난 ‘문법’ 영역에 한정하였으며 학년은 7학년(중학교 1학년) ‘사동·피동표현’ 단원으로 선택, 교과서는 검정 국어교과서 5종(천재교육\_박영목

(1-2), 비유와 상징\_조동길(1-2), 교학사\_김형철(1-2), 천재교육\_노미숙(1-2), (주)도서출판 디딤돌(이삼형)(1-2))에 한하여 수행하였다. 둘째 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에서 논의되는 이론들과의 교과서 비교 분석은 교육과정과의 타당성에 근거하여 진행하였고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상황학습 이론의 총체적 검토를 통해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 상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문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상황학습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상황학습이 문법교육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에는 학습자 실생활에 근거한 과제 사용, 균형적인 학습 맥락 제공, 귀납적 탐구학습, 협동학습 등 상황학습의 특징을 반영하여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제시되어 있었다. 이는 교과서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사와 학생 사이 상호작용의 매개물은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문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분석할 교과서는 개정 교과서로 변경될 2010년 당시 기준으로 집계된 선정 순위 상위 5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분석 기준 4가지를 설정하여 이를 충족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가장 문법적이면서도 화법적인 성격을 가진 ‘사동·피동 표현’을 분석 내용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분석 기준 4가지 중 유독 ‘균형적인 학습 맥락의 제공’과 ‘협동학습의 구성’이 상당 부분 미흡하여 상황학습을 통해 보완되고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III장에서는 상황학습이론을 통한 ‘사동·피동표현’의

교수·학습 방법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수업 설계를 위해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목표 중심 수업이 가장 효과적임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목표 중심 수업 설계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상황을 상황과 환경의 조성문제라는 학계의 논의를 통해 상황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환경 조성의 당위성을 얻고 앞서 지적인 교과서에서 부족한 점을 수정·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 제시된 ‘사동·피동 표현’의 성취기준과 내용학습의 예를 학습 목표, 소단원의 학습 목표, 소단원의 구체적인 목표 셋으로 나누어 각 단원의 학습 목표를 세웠다.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은 그 문법적 실현 방법이 비슷할 뿐 실은 전혀 다른 문법 현상이므로 이 둘을 이원화하여 각각 1차시씩 분량을 수업으로 구성방법이, 각 표현마다 작은 단위의 학습 목표 여러 개를 달성방어 최종 목표인 대단원의 목표에 이르는 나선형으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단위 수업 계획은 한 차시 분을 중학교 수업 시간 45분으로 하고 사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피동 표현에 관한 수업 1차시, 사동 표현과 피동 표현의 구분 및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을 이해하는 수업 1차시 해서 총 3차시 분량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문법의 학문적 특성상 문법 교육 안에서 탐구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여 모든 수업 과정이 탐구학습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상황학습 이론 적용을 위해 기존의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도입(문제설정)-기본학습-탐구학습-발전학습-정리 및 평가’의 5단계로 나누어 과정안을 구성하도록 논의를 진행하였다. 교수·학습 과정안은 각 차시마다 활동지가 제공되며 제시된 활동은 팀을 이루어 협동하여 수행하면서 귀납적 탐구학습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

도록 설계하였다. ‘도입’ 후에 이어지는 ‘기본학습’에서는 문법의 지식·개념의 충분한 교수·학습을 통해 균형적인 학습 맥락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인지적 발판 형성, 코칭으로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도움과 자극을 제공하고 수업이 진행되어 활동이나 협동학습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책임을 학습자에게로 이양하여 마지막 차시에서는 거의 교사의 도움 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사동·피동 표현 단원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고 수업 과정안 3차시 분량, 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 예시안 3개를 구안하였다. 1차시에서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로 사동표현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주동문과 사동문을 비교하여 개념을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가사와 다양한 실제적 예문을 통해 우리말의 사동이 어떠한 문법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탐구학습’에서는 신문에 실린 기사문에서 사동표현을 찾아보고 앞서 배운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을 적용하는 활동을 모둠활동으로 구성해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활동지의 예문은 문학작품에서 볼 수 있는 담화자료, 노래 가사 등 학습자 실생활에 적합한 자료들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각 모둠이 수행한 활동을 발표하도록 한 후 활동지를 걷어 교사가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에서도 1차시의 학습 방향과 비슷하게 구성, 대단원의 학습목표로 피동표현을 알아보는 수업으로 능동문과 피동문을 비교하여 개념을 이해하고 탐구활동은 협동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 3차시에는 교사의 도움이 거의 없이 학습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활동을 짝끼리 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사동 표현, 피동 표현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더 심화하여 두 표현의 차이를 알고 잘못된 사동·피동 표현까지 고칠 수 있는 학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수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쏟아져 나왔지만 여전히 문법 교육에서만은 그 결과가 미흡하고, 더없이 노력해야만 문법 교육의 기피 현상 극복에 아주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정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천되어야만 실천가능성과 실효성을 가진 연구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말 뿐인 탁상공론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고안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토대로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해 보지 못한 점이다. 또한 교과서 분석에 있어서 더 많은 종류의 교과서를 다루어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점이고 중학교 1학년 검정 교과서가 중학교 2학년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한 출판사가 있어 문법 학습 내용의 계열성을 제대로 살펴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도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성주의 학습 이론 중 하나인 상황학습을 통한 문법의 교수·학습 활동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된다면 현재의 문법교육은 그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Ⅱ) : 국어 도덕 사회,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김주아(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0 일반계 고등학교 보통교과 선택과목  
개설 현황,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연보(2010), 탑재일자:  
2010. 12. 23

김형철 외(2009), 중학교 국어 1-2, (주) 교학사.

김상욱 외(2009), 중학교 생활국어 1-2, 창비.

노미숙 외(2009),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박영목 외(2009), 중학교 국어 1-2, 천재교육.

이삼형 외(2009), 중학교 국어 1-2, (주) 도서출판 디딤돌.

조동길 외(2009), 중학교 국어 1-1, 비유와 상징.

### <단행본>

강인애(1997), 왜 구성주의인가, 문음사

고춘화(2010), 국어교육을 위한 문법교육론, 역락

김광해(1997),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대행(1995), 국어 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판수 외(2003),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성광수 외(2005), 한국 표현 문법, 한국문화사

이관규(1999), 학교문법론, 월인

이관규(2008), 학교문법교육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임지룡 외(2010),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집필한 문법 교육론,  
역락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평 확장, 역락  
최미숙 외(2008),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 <논문>

김광해(1992), 문법과 탐구학습, 산청어문 2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p81-100  
김제희(2004), 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공통사회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37-47  
김현영(2011), 상황학습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학습자의 지식 생성 과  
정 및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 탐색(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  
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공학전공 석  
사학위논문, p13-20  
남가영(2008), 문법탐구 경험의 교육내용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25-83  
송수현(2011), 문제중심학습에 기초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품사'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  
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18-25  
유효빈(2010), 상황학습 이론을 적용한 통합 환자 시뮬레이터 수업의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p7-9  
이관규(2001), 학교 문법 교육에 있어서 탐구학습의 효율성과 한계점에 대한

- 실증적 연구, 국어교육 106, 한국어 교육학회, p31-73
- 이주섭 외(2002), 문학과 읽기의 통합적 지도를 위한 수업 모형 개발 연구,  
한국초등교육 14, 서울교대
- 이예영(2011),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40-47
- 임철성(2008), 국어과 수업에 대한 반성적 고찰: '대단원 수업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회
- 전은주(2010), 화법과 문법의 통합교육 내용 구성, 부산대, 한국문법교육학회  
(1:5-9).
- 정연희(2003), 상황학습에 근거한 미술과 교수-학습 방법 연구, 미술교육 총  
논, 17, p1-25
- 최정임(1997), 상황학습이론에 따른 학습 내용 구성, 교사역할·평가원리에  
대한 고찰, 교육학 연구 1997 : 35 (3) : 213-239
- 허창범(1992), 구성중심 수업의 학습 효과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황혜민(2011), 상황학습을 적용한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와 '웃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 교수-학습 개발 및 효과 검증, 고려대학교 교  
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p5-30
- Brown, J.S. ,Collins, A.,& Duguid, p. (1989). 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Educational Researcher, 18(1), 32-41.
- Collins, A. (1988). Cognitive apprenticeship and instructional technology :  
Technicalreport (ReportNo.6899). Cambridge, MA: BBN  
Laboratories Incorporated.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1465)

- Collins, A., Brown, J.S., & Newman, S.(1989). Cognitive apprentice ship : teaching the craft of reading, writing, and mathematics. InL .B. Resnick(Ed.), *Cognition and instruction: issues and agendas*. Hillsdale, NJ: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lins, A(1990). Reformulating testing to measure learning and thinking. InN. Frederiksen, R.Glaser, A.Lesgold, & M.G. Shafto(Eds.). *Diagnostic monitoring of skill and knowledge acquisition*(pp.75-87). Hillsdale.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Jonassen, D.H.(1991). Context everything, *Educational Technology*, 35(6), 35-37.
- Lave, J.& Wenger, E.(1991). *Situated learn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ve, J.(1988). *Cognition in practice: Mind, mathe matics, and culture in everyday life*. NU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A Study on Grammar Education through Situated Learning  
- Centered on The Unit related with 'Causative·Passive  
Expression' -

Kong, Yoon-hee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Education  
Seoul,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Hye-Seon, Doctor of Education

This thesis is, as a research for proposing more sophisticated methods of grammar teaching through situated learning of constructivist learning theories, a study for suggesting new learning·teaching methods by analyzing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comparing and analyzing five different kinds of revised text books reflecting the analysis.

Briefly mentioning the contents argued at each chapter are as follows:  
In the introduction, a severity of a phenomenon of avoiding grammars

in current school sites is examined based on the statistical research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need of studies to overcome a such matter is suggested. The grammar education is actually a burden that not only students but even teachers would avoid in a school site and even its existence is at stake. It can be explained as the result of the cramming education, which has brought many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meantime, and traditional teaching methods that have been only busy explaining and memorizing. Thus, for it deems that an improvement in methodological aspects of grammar education is urgent, it is considered that the existing situation of grammar education that has mass produced passive learners and caused ones to avoid grammar can be overcome by situated learning of constructivist learning theories through a review of a variety of precedent studies.

In the second chapter,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situated learning is simply discussed and the argument about what correlations the situated learning has with grammar teaching is conducted through an analysis of 2007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rough the analysis, the training contents reflecting the features of situated learning such as using projects based on learners' real-life, providing a balanced learning context, inductive exploring studies, cooperative learning, etc are significantly presented in the curriculum. It means that it is recommending publishing textbooks in such manners, and the discussion has been conducted for it deems that an analysis of textbooks is

required since the medium for an interaction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n actual school sites is textbooks.

The textbook analysis has set limits to seventh grade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selected 'causative·passive expression' that has the most grammatical, yet narrative characters among criteria outlined in the curriculum. For the textbook, the top five textbooks in a selecting ranking aggregated according to the standard in 2010 when textbooks were revised have been made analysis targets, the four analysis criteria are set by referring precedent studies and the analysis is performed in a way to observe whether the criteria can be fulfilled. As a result, it could be concluded that most textbooks should be complemented and improved by situated learning since the composition of providing a balanced learning context and of cooperative learning is especially a bit poor among the four analysis criteria.

Because of such analysis, the third chapter aims to newly suggest methods of learning·teaching 'causative·passive expression' through situated learning theories. First of all, it discussed that goal-oriented classes are most effective in school sites for designing the overall class, and a design model of goal-oriented classes that have been used the most in fields is suggested. In addition, a justification of the environment being made up of situated learning is obtained through the discussion that the pedagogic situation of grammar knowledge is a problem of the composition of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and is suggesting a teaching·learning process focused on adjusting·complementing

weaknesses of the textbooks pointed out earlier.

Accordingly, the achievement criteria for 'causative·passive expression' suggested in the curriculum and the examples of learning contents are divided into three: learning objectives, learning objectives for subsections and specific objectives for subsections, and learning objectives for each chapter are set. Because causative expression and passive expression are grammatically similar yet completely different grammatical phenomena, it decided to construct classes by dualizing the two expressions and making each the amount of one full session, and the discussion is progressed to design teaching·learning courses in a spiral that achievement of many objectives of small units for the each expression is led to a final goal of the main unit.

For the overall course plans, one class is made 45 minutes long, the length of a middle school class hour, and the total of three classes is planned with causative expression for one class, passive expression for one class, and distinguishing the two expressions and understanding inappropriate usages of the expressions for one class. In addition, all the classes are designed to use exploring studies since such studies are well fit to grammar education due to the academic nature of grammar. For the application of situated learning theories, the argument is done to construct a process that the existing three steps of 'introduction - deployment - arrangement' are further refined to five steps of 'introduction (problem setting) - basic training - exploring studies - developing studies - arrangement and assessment'. Teaching·learning

process is designed to provide an activity sheet for each class, do proposed activities as a team with cooperation and as well perform the learning through inductive exploring studies. In the 'basic training' after the 'introduction', a balanced learning context is provided through the knowledge and concept of grammar and enough teaching·learning activities. The role of instructors is designed to develop students' cognitive scaffolding, provide proper helps and stimulation according to learners' needs, finally make learners possibly capable of self-directed learning without instructors' help being needed by gradually transferring the responsibility from instructors to learners as the class proceeds and is led to individual or cooperative activities.

Over the course of these studies, a teaching·learning process measure of causative·passive expression chapter is suggested, the three illustrations of activity sheets that can be used in the three classes accordingly are found.

Although there are countless teaching·learning methods been presented through various studies in the meantime, it is true that the result is still weak in grammar education and only endless effort can contribute a little to overcoming the phenomenon of avoiding grammar education. If the teaching·learning activities proposed in this study through situated learning of constructivist learning theories are continuously studied and performed in school sites, the existing grammar education should overcome its own problems and earn much benefits.

Key words: Constructivism, Grammar Education, Situated Learning,  
Teaching·Learning, Causative·Passive Expressio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ebruary 2012.